09-03 (통권 332호)
2009.01.1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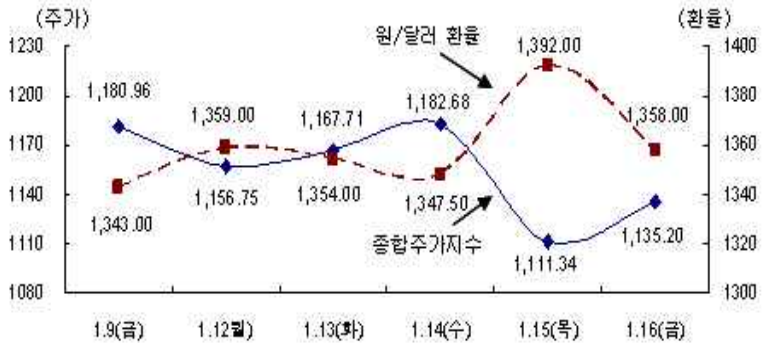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 변화 전망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01.09~01.16)



주가	환율	금리	유가
-45.76	15.0	0.13	-1.75
1,135.20 (종합주가지수)	1,358.0원 (원/달러)	3.61% (국고채 3년물)	44.18달러 (두바이油) 전일 기준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 변화 전망 1

주간 경제 동향 18

□ 실물 부문 : 12월 수입 물가 하락세 지속 18

□ 금융 부문 : 금융시장 불안 재연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임 희 정 연 구 위 원 외 (3669-4031,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 변화 전망

1. 오바마 정부의 출범

미국 제 44대 정부가 오는 20일 오바마의 취임으로 공식 출범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미국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고, 실물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경기회복, 미국사회의 실질적 통합,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강화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 오바마 시대 세계 경제 변화 전망

오바마 정부 인수위에서 작성한 오바마-바이든 플랜(Obama-Biden Plan)에 나타난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추구된다면 향후 세계는 각 부문에서 작고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세계 경제는 새로운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창출, 소비 진작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의 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7년 명목 GDP 13.8조 달러의 23.2% 수준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안정자금과 재정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경제안정 대책이 성공할 경우에 미국 경제는 2009년 하반기 회복의 단초를 보이고, 이에 영향을 받은 세계 경기는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계 통상부문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한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경기 침체 악화로 미국은 경제 체질의 강화와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위해 공정무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추구할 경우, 세계 무역 시장은 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계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新금융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스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금융안의 효율적인 사용, 금융규제 강화로 미국 금융시스템의 개선이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는 도덕적 해이 완화, 투명

성 강화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세계 금융체제 형성에 강력한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新금융체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위한 자금조달 등으로 미국과 주요국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안을 느낀 미국투자자들의 자금회수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미국 국채와 달러가 선호됨으로써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은 채무국 입장으로, 중국과 일본 등 채권보유국은 채권국 입장에서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통화전쟁 및 경제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는 차세대 IT기술 전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은 브로드밴드 확충과 인터넷 접근성 증가시켜 미국 IT산업의 우위를 유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 중립성과 무선 주파수 개방을 통한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IT시장에서의 우위권 확보를 위한 미국과 주요국의 경쟁으로 세계 IT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GT(Green Technology)붐이 조성될 것이다. 미국은 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GT분야에 대한 투자와 저탄소사회로의 체질 개선책을 통해 신성장동력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은 물론이고 500만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한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GT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대외 정세 측면에서는 세계는 평화 공존의 시대를 모색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대외 정책으로 스마트(smart) 파워를 강조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종료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체제 유지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통한 미국의 유연한 외교 기조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미국의 유화적 대북관계로 한반도에 新해빙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는 대화를 중시하고 대북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유화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한반도에 평화적인 기류를 다시 끌어오는 新해빙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사점과 대응 방향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의한 세계 경제 환경 변화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병존한다. 긍정 요인은 Green New Deal과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의 시너지효과와 남북관계에서의 해빙기류 조성이다. 부정 요인은 보호주의기조 확산에 의한 해외 수출시장의 위축,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 IT산업 경쟁 심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의 타개를 위해 미국정부의 기조를 우리의 여건에 맞게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간 통상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공정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FTA 관련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준비를 통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증가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역조 해소를 위한 통상 압력 강화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세계 新금융시스템에 적응하여야 한다. 글로벌 달러 불안에 따르는 세계 금융 질서의 안정을 위한 질서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금융체제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G-20 회의를 포함,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신흥국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아시아 협력의 강화를 통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와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한다.

셋째, 對美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 및 외교라인 내의 지한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미 삼각균형 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新해빙기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간 동맹 강화와 남북관계에서의 유연한 자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를 확보하여 남북 경협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활성화를 현 국면 타개의 돌파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원화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켜 투기적 가수요의 발생을 막고, 수출입 업체들이 정상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IT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차세대 IT 산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는 차세대 브로드밴드 경쟁 강화에서 인프라 개발과 함께 핵심요소다.

일곱째, 세계적인 GT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Green New Deal과 보조를 맞춰 녹색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 변화 전망 >

오바마정부의 출범	
오바마의 새로운 도전	- 경제위기 극복의 전기 마련 - 실질적 변화와 개혁의 시대 개막 -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기반 마련

오바마 시대 세계 경제 변화		
경기	**세계 경기 회복의 전기 마련**	- 적극적인 재정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미국경기 진작 - 미국 경기 조기회복은 세계 경제 회복을 앞당김
통상	**공정무역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 보호무역주의 기조인 공정무역의 추구 - 미국을 비롯한 각국 간 무역 마찰 우려 증대
금융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新금융체제 성립**	- 도덕적 해이 완화, 투명성 강화와 금융 사기 방지 추진 - 금융규제 강화로 효율적인 新금융체제 수립
재정	**재정적자 확대로 세계 불균형 심화**	- 각국 재정적자 확대로 미국투자자 자금회수, 안전자산 선호 - 위기로 인해 오히려 미국에 더욱 의존하는 불균형 현상 확대
기술	**차세대 IT 기술 전쟁의 가열**	- 미국 경쟁력 제고 차원의 브로드밴드 확충 추구 - 브로드밴드 주도권 경쟁은 IT산업의 경쟁 가열 유도
환경	**세계적인 GT붐 조성**	- 미국은 GT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로 저탄소사회로 전환 - 미국과 주요국의 녹색투자 경쟁은 세계 GT붐 조성
외교	**세계 평화 공존 시대 모색**	- 미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강조 - 외교적 노력의 증대로 세계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줄어 듬
한반도	**한반도 新해빙 여건 조성**	- 미국은 대화를 중시하고, 대북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희망 - 북핵문제 해결 등으로 한반도의 新해빙 여건 조성

시사점 및 대응방향		
시사점	**긍정 요인**	- Green New Deal과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의 시너지효과 - 남북관계에서의 해빙기류 조성
	부정 요인	- 보호주의기조 확산에 따르는 국내 수출시장의 위축 -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 - IT산업 경쟁 심화
대응방향		- 한미간 통상 협력 체제 강화 - 세계 新금융시스템에 적응 · 국내 금융시스템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 對美 외교 강화 -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미 삼각균형체제 성립 - 원화 환율 안정 노력 증대 - IT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 GT붐 적극 활용

1. 오바마 정부 출범의 의미

○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가 2월 20일 취임함으로써 미국 44대 정부가 공식 출범함

- 취임식은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서문 앞 광장에서 진행됨

·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2월 20일 오전 12시부터 시작됨

· 이번 취임식은 기업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모아준 2,100만 달러의 모금을 이용하여 치러짐

·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번 취임식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

- 오바마의 44대 정부의 1기 내각은 위기관리와 개혁에 중점

· 이를 위해 클린턴 행정부 출신의 전문 관료 혹은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됨

· **경제 각료** : 재무부장관 가이트너, 경제자문위원회(NEC) 위원장 서머스, 경제자문회의(CEA) 의장 로머, 국내정책위원회(DPC) 위원장 반즈, 경제회복위원회 의장에 볼커, 사무국장에 굴스비

· **기타 경제관련 각료** :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는 샤피로, 예산국장에는 오르그작

- 오바마 정부 주요 인물의 성향

· **로렌스 서머스** : 중산층 성장이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주장

· **티모시 가이트너** :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

· **크리스티나 로머** : 조세와 경기침체 문제에 선구적인 성과 보유

· **멜로디 반즈** : 의료, 교육, 이민 등 국내문제 전문가

· **폴 볼커** : 1980년대 살인적인 미국 물가를 진압한 경력 보유

· **오스탄 굴스비** : 자유무역과 균형예산을 중시하나 정부의 능동적인 시장개입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 인정

· **메리 샤피로** : 금융산업 규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

○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경제위기 극복과 실질적인 개혁 시대로의 진입을 예고

- 경제 위기 극복의 전기 마련

- 오바마 정부 시기는 경제위기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매진함으로써 미국 경기회복의 단초가 제공되는 기간이 될 것임
-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모진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경기 회복의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오바마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여 미국인의 환심을 사고 대통령에 당선

- 미국사회가 다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커짐으로써 흑백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이전 정부의 정책실패 등으로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는 등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됨
- 미국의 기존 대통령은 앵글로색슨계의 백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문율이었으나 흑인계의 오바마 정부의 수립은 진정한 의미의 다인종 사회로 진전되었음을 의미
-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진 오바마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폭이 증대
- 부시 정부의 각종 정책의 실패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불안 증대, 대테러와의 전쟁의 미흡한 결과 등으로 높아진 체제변화에 대한 요구는 오바마 정부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것 임

- 미국의 리더십 회복의 새로운 기반 마련

- 현재의 경제위기의 단초인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시스템의 신뢰 훼손과 함께 추락한 미국의 신뢰도를 적극적인 위기 해결 의지와 세계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부각으로 리더십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특히 대화를 강조하는 외교정책 추구를 통해 이라크 전쟁과 세계 분쟁지역의 안정화를 주도함으로써 대외적인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할 것임

< 오바마 정부의 주요 경제 참모진 >

직위	성명	주요 특징
경제자문위원회 (NEC) 의장	로렌스 서머스 (Lawrence Summers)	- 전, 재무부 장관, 전 하바드대학교 총장 - 1990년대 최장 기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경제정책을 총괄 - 중산층 성장이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주장
재무부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Timothy Geithner)	- 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 리먼브라더스 파산 신청, AIG 구제금융 진두 지휘 -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
경제자문회의 (CEA)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 (Christina Romer)	- UC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 - 대공황 이후 경제회복에 관한 연구 주력 - 조세와 경기침체 문제에 선구적인 성과
국내정책위원회 (DPC) 위원장	멜로디 반즈 (Melody Barnes)	- 미국 진보센터(CAP) 부소장 - 의료, 교육, 이민 등 국내문제 전문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의장	폴 볼커 (Paul Volker)	-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 1980년대 살인적인 미국 물가를 진압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사무국장	오스탄 굴스비 (Austan Goolsbee)	- 시카고 경영대학 교수 - 자유무역과 균형예산을 중시하나 정부의 능동적인 시장개입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 인정
경제수석보좌관	제이슨 퍼먼 (Jason Fruman)	- 클린턴 행정부 정부 각료 - 세계은행 근무
예산국장	피터 오르작 (Peter Orszag)	- 클린턴 정부 경제보좌관 -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 양극화해소를 위한 해밀턴프로젝트 책임자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	메리 샤피로 (Mary Shapiro)	- 금융산업규제협회(FINRA) 회장 - 금융산업 규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

2.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오바마 정부 인수위에서 작성한 「오바마-바이든 계획」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는 2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

- 24개의 과제를 경제, 에너지·환경, 사회복지 향상, 외교·안보, 교육·기술의 5개의 대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경제** :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조치,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시스템 구축 등
  - **·에너지·환경** : 청정에너지 산업 부흥 개발에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친환경관련 일자리 500만개 창출. 이를 위한 세부 정책을 통해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 기후변화 대책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를 추구
  - **·사회복지 향상** : 건강보험 개선, 차별금지, 동등한 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추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교·안보**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의 충돌 완화 추구, 한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국가와의 새로운 동맹 관계 구축
  - **·교육·기술** : 모든 어린이가 교육받고 대학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수학과 과학에 대한 지원, 차세대 브로드밴드 확충 추진

- **기타 중요 추진 사항** : 장애, 윤리, 건강보험, 국내안전, 농촌, 도시정책, 퇴역군인, 기타

< 오바마-바이든 플랜의 주요 내용 >

대분류	어젠다	세 부 내 용
경제 · 조세	경제	- 즉각적인 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의 추가 고용 1인당 3,000달러 세금 환급 - 사회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 저소득 가정에 1,000달러 세금환급 - 공정무역의 추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 추진 - 청정에너지 투자와 5백만개 녹색일자리 창출 -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 기간산업에 600억 달러 투자로 2백만개 일자리 창출, 350억 달러 가치의 경제활동 유발 -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강화 · 최저임금 상향 조정
	재정	- 예산의 편성 시 제로섬을 기준으로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준수 -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시스템 구축
	공공 서비스	- 미국봉사단(AmeriCorps) 25만 명으로 확대 - 해외봉사단(Peace Coprs) 1만 6,000명으로 확대
	조세체계	- 연수입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은 증세, 그 이하의 중산층은 감세 정책 추진
외교 · 안보	국방	- 21세기에 맞는 국방역량 구축을 위한 투자 증대 -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계획 추진 - 미국 동맹국의 결속 강화
	대외정책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병력 파병 증가 · 알카에다와 탈레반 척결을 통한 對 테러전 승리 - 핵확산방지 강화를 통한 핵무기없는 세계 추구 · 이란의 불법적인 핵무기 무장 해제 추구 - 에너지독립을 통한 에너지 안보 추구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완화 추구 -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국가와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
	이민	- 국경수비강화 - 이민 관련 기구 및 제도 개선 - 불법고용자 고용 금지로 불법입국 여지 차단
	이라크문제	- 이라크 전쟁 종료를 위해 단계적 철수 진행 -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라크와 주변국의 안정 유도
교육 · 기술	교육	- 유아(0~5세)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강화 - 최초 4,000달러 지원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 제고 - 수학과 과학을 국가 우선순위로 선정 - 우수한 선생님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기술	- 차세대의 브로드밴드의 구축 -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국경쟁력 향상
에너지 · 환경	에너지 · 환경	-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에 1,500억 달러 투자로 500만개 일자리 창출 -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카 100만대 보급 - 대체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 10%, 2025년 25% - 탄소배출거래제를 통해 2050년까지 80% 감소 - 기후변화 대책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
사회복지	시민권리	- 차별금지, 동등한 사회적 권리 보장
	가족	- 근로소득장려세(EITC)의 확대
	빈곤	- 향후 5년간 직업훈련에 10억 달러 투자 -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불 50센트로 인상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는 방안 추진

자료 : 오바마-바이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http://change.gov/).
주 : 24개 플랜 중 나머지 9개는 장애, 윤리, 건강보험, 국내안전, 농촌, 도시정책, 퇴역군인, 기타 등 임.

3. 오바마 시대 세계 경제 변화 전망

○ 오바마 정부 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 양상이 나타날 것임

- **세계 경제의 8대 변화** : 오바마 정부가 어젠다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세계 경제가 겪어야 할 8가지 변화를 전망

· **첫째, 세계 경기** : 새로운 경기 회복의 기반 마련

· **둘째, 세계 통상부문** : 공정무역을 통한 보호주의 확산

· **셋째, 금융부문** :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新금융체제 성립

· **넷째, 재정정책** :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

· **다섯째, 기술 및 산업** : 차세대 브로드밴드 전쟁의 가열

· **여섯째, 에너지·환경** : 세계적인 GT붐 조성

· **일곱째, 대외정책** : 세계 평화 공존 시대 모색

· **여덟째, 대북관계** : 한반도 新해빙 여건 조성

① 세계 경기 회복의 전기 마련

○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미국 경기의 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미국 경제의 조기 회복이 이루어지면 세계 경제 회복도 앞당겨질 것임

- 적극적인 재정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 제고

· **재정정책** : 세금환급 및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세 환급을 통한 고용 창출

· **사회간접자본 투자** : 수송 분야 개선을 위한 투자로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50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유발

· **사회취약계층 지원** :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한 소비심리 급랭 방지

< 주요 경기 활성화 정책 >

부문	세 부 내 용
재정정책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 기업의 추가 고용 1인당 3,000달러 세금환급 - 중소기업 영업세 25만 달러까지 환급으로 고용 유도 -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 - 실업보험 강화 - 퇴직연금의 15% 혹은 10,000달러까지 조기인출 허용

자료 : 오바마-바이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http://change.gov/).

- 미국 경기 회복 대책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미국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 불안 심리 안정과 내수 증가로 2009년 하반기 부터는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나낼 것이며, 이는 세계 경기의 본격 회목을 견인할 것임

· **경기부양 규모** : 미국은 GDP의 23.2% 규모인 3조 2,040억 달러를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할 계획임

· **세계 경기** :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현재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기 회복은 세계 경제 회복을 앞당김

< 주요국의 세계 GDP 대비 비중 추이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세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럽	19.9	20.9	22.9	23.3	22.4	21.9	22.3
중국	4.2	4.4	4.4	4.6	5.0	5.5	6.0
일본	12.9	11.9	11.4	11.1	10.1	9.0	8.0
미국	32.0	31.8	29.6	28.0	27.6	27.1	2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② 공정무역의 대두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 미국 경제 체질의 강화와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위해 공정무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세계 무역 시장은 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기조 변화

- **공정무역(fair trade)** : 오바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 창출을 위해 공정무역을 추구
  ※공정무역이란 공정한 상호주의 추구를 통한 무역거래로, 변형된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고 봄
- **자유무역협정 개선** :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세계의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 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개선이 추구될 것임
- **무역수지상 불균형에 대한 시정 추구** : 오바마는 무역수지상 지나친 불균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기회있을 때마다 내비침[1)]
- **위기 해결의 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 미국 경기 침체 심화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주요 통상정책 방향 >

부문	세 부 내 용
통상정책	- 공정무역의 추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 수정 추진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 추진 - 미국 근로자고용 유도를 위한 기업 세금 감면 추진

자료 : 오바마-바이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http://change.gov/).

-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세계 통상 마찰 증대 우려

- 특히, 대미 무역 비중이 큰 일본과 한국 등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1) "Fighting for fair trade and good jobs for American workers," Obama' 08 (http://barackobama.com).

③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

○ 구제금융의 효율적인 사용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해 미국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금융규제 강화** : 오바마 당선인은 금융 규제 강화는 새 행정부의 입법상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
  -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금융 위기를 통한 교훈이 있다면 금융 감독의 실패는 경제 전반을 초토화하는 잠재성이 있어 이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
  - 또한, 금융감독 실패의 책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발생

< 주요 금융 규제 정책 방향 >

내 용	방 향
도덕적 해이 완화	-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금융 기관의 인센티브 구조 개혁
규제 범위의 확대와 강화	- '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규제 감독의 확대 - 부외 거래 (off-balance)에 대한 규제 - 금융 위기 예방 원칙에 대한 실시
투명성 강화와 금융 사기 방지	- 과도하게 복잡한 구조의 금융 상품 판매 금지
경기 순행성 완화	- 경기 역행적인 자본의 확충을 통한 금융 자산 증가 억제 - 월스트리트 자금을 이용한 구제 자금 형성

자료 : Group of thirty, *Financial Reform*, Jan 15, 2009 등 참고로 필자 작성.
주 : 그림자 금융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은 머니마켓펀드, 주식딜러, 헤지펀드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유동성를 만들어 냄.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형은행 등의 그늘에 가려있다고 해서 '그림자'라는 단어를 사용.

- **국제 금융질서는 시장의 투명성 확대 및 국제금융통제기구의 감시·감독 역할을 강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덕적 해이 완화, 규제범위의 확대와 강화, 투명성 강화와 금융사기 방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금융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세계는 진화된 금융시스템의 구축할 것으로 전망

④ 재정적자 확대로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

○ 경기부양책을 위한 자금조달 등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세계 주요국 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 됨

- **미국 재정수지 적자 확대 불가피** : 2009 회계연도[2] 첫 3개월 동안 재정적자는 이미 4,50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미 의회 예산국(CBO)은 2009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하지만 이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7,750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으로 구제금융 비용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정적자	-2,482(-1.9)	-1,607(-1.2)	-4,550(-3.2)	-11,860(-8.3)	-7,030(-4.9)

자료 : CBO(Congress Budget Office). ( )은 GDP대비 비중.

- **재정적자 부작용** :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후유증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 수요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마저 상존
  - 즉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이자율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대규모 통화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 :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대외 부채 확대로 이어져 세계 주요국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임
  - 이는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르는 세계 경제의 다극화 현상을 진전시키고 각국 간 통화안정을 위한 환율 전쟁을 가속화 시킬 것 임

2) 2009년 회계연도는 2008년 10월 부터 2009년 9월까지 임.

⑤ 차세대 IT 기술 전쟁의 가열

○ **미국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브로드밴드 확충과 인터넷 접근성 증가로 IT산업의 우위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세계 IT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투명하고 소통 가능한 민주주의와 최신 통신 구조의 확장을 위한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성을 추구**
  - 최첨단 기술을 통한 정부 개혁과 정부와 시민의 정보 교류를 통한 한차원 높은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참여성을 유도
  - 지역단위의 차세대 브로드밴드의 설치와 확장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 지원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지원, 세금 혜택 및 대출 지원을 실시

-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무선 주파수 개방(Wireless Spectrum)을 통한 인터넷 사용 환경의 경쟁력 강화 유도**
  - 미국의 차세대 브로드밴드 분야에서의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는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주요국의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

< 주요 IT 정책 >

부문	세 부 내 용
기술	- 차세대 브로드밴드의 구축 - R&D 투자 확대를 통한 디지털 분아의 미국 경쟁력 향상

자료 : 오바마-바이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http://change.gov/).

- **IT 뿐만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도 기술을 확보·유지하려는 노력 강화**
  - 무역 정책을 통한 지원과 향후 10년간 기초과학에 대한 2배 이상의 정부 지원으로 미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 대학을 기초로 산학협력과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R&D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 경쟁시장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 무역과 국내외에서 미국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
  - 백악관의 정책 결정에 있이 과학·기술을 우선시 하는 기조를 학립하고 특허 시스템의 변화를 추진
  - 향후 5년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100억 달러 투자로 의료 산업 비용의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⑥ 세계적인 GT붐의 조성

○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GT분야에 대한 투자와 저탄소사회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GT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Green New Deal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위기의 극복은 물론 미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여 국내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에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구체화

·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 전반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 trade program)를 도입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80%를 감소

· 자동차 산업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0만대 보급

< 주요 에너지·환경 관련 주요 정책 >

부문	세 부 내 용
에너지·환경	-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에 1,500억 달러 투자함으로써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브로드밴드를 구축 - 탄소배출거래제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80% 감소 - 기후변화 대책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

자료 : 오바마-바이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http://change.gov/).

- 한편, 리스크가 큰 에너지 분야에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함으로서 "녹색투자를 통한 고급일자리(green and high-tech jobs)" 창출을 도모할 계획

· 에너지청 장관에 물리학자인 츄교수를 발탁한 것만 보더라도,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음

- 녹색투자의 파급효과

· **고용 창출** : 녹색투자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이 진행될 것이나, 녹색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높은 에너지가격 유지, 다른 부문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경우 전체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도 있음

· **녹색 버블 진행** : 미국 경제는 2000년대의 IT버블과 낮은 원유가격에 힘입어 경기 침체를 벗어난 것과 같이 녹색성장 관련 버블과 안정적인 원유가격이 유지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의 양상을 나타낼 것 임

⑦ 세계 평화 공존 시대 모색

○ **오바마 정부는 대외 정책으로 smart power[3]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종료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체제 유지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세계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對 테러전 종료를 통해 중동의 평화를 진작시키고, 아시아 국가와는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을 중시**
  - 對 **테러전 종료**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파병을 증가하여 알카에다와 탈레반 척결하고 이라크 전을 포함 對 테러전 조기 종료를 시도
  - **중동지역 평화 구축** : 핵확산방지 강화를 통해 이란의 불법적인 핵무기 무장 해제를 추구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
  - **아시아 지역과 새로운 동맹관계** :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인 아시아 지역과의 동맹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형성함으로써 세계 패권자의 위치를 유지

< 오바마-바이든의 대외정책 어젠다 >

부문	세 부 내 용
대외정책	- 알카에다와 탈레반 척결을 통한 對테러전 승리를 위해 파병 증가 - 이란의 불법적인 핵무기 무장 해제 추구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완화 추구 - 에너지 독립을 통한 에너지 안보 추구 -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국가와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

자료 : 오바마-바이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http://change.gov/)

- **세계적인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며 세계 평화 공존이 확산 :** 2001년 9.11 사태 이후 지속된 전쟁 종식을 통해 세계 유일의 '슈퍼 파워'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고 세계 평화의 시대를 모색
  - **전쟁 종식** : 대통령 취임 후 16개월 내 이라크에서 미국 완전 철수를 공약한 만큼,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신속히 종결하고 평화 체제로의 전환
  - **대화와 협상 증대** : 군사력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은 자제하고, 외교력을 집중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글로벌 이슈들의 해결을 도모
  - **국제사회 리더십 복원** : 잦은 전쟁과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원지로 손상된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위치 복원

3) 스마트파워(smart power)는 군사, 경제제재 등 하드파워(hard power)와 정치, 외교, 문화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균형적 결합을 의미.

⑧ 한반도 新해빙 여건 조성

○ 오바마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대북 정책은 국내 경제 및 중동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으나 북한과의 직접 대화 추진 등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해빙 여건을 조성할 가능성이 큼

- **오바마의 대북 정책** :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북미 간 '직접외교'를 계속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임을 밝힘

- **북미 관계 전망** : 오바마는 위험한 상대방과의 전제 조건 없는 직접 대화 지지하고 있어, 북미간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이에 호응하고, 북핵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북미 관계는 급속한 진전을 보여 국교정상화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단, 북한이 북핵 검증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핵 폐기에 과도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북미 관계는 진전과 서행을 거듭하며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대북 정책 >

	세 부 내 용
제네바 기본 합의 (1004년 10월)	- 핵 폐기를 전제로 경수로 제공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핵동결 선언 유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페리 프로세스 (1999년 10월)	-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해제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
오바마 정부	- 힐러리 국무장관은 대화를 중시하고 대북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희망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폐기 유도 - 스마트파워 추구로 위반 시에는 과감한 제재도 가능

- **오바마 정부의 대화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한반도에는 新해빙 분위기가 도래될 것임**
  · 미국의 유연한 대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적인 기류를 다시 끌어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 임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1) 시사점

ㅇ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의한 세계 경제 환경 변화는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병존

- **긍정요인** : Green New Deal과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의 시너지효과, 남북관계에서의 해빙기류 조성

- **부정요인** : 보호주의기조 확산으로 인한 해외 수출시장의 위축,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 IT산업 경쟁 심화

-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의 타개를 위해 미국정부의 기조를 우리의 여건에 맞게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음

2) 대응 방향

ㅇ 한미간 통상 협력 체제 강화

- 미국 정부의 공정무역정책에 대비하여 한미FTA 관련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준비를 통해 양국 간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친 부문에 대해서는 GATT, FTA 등 국제무역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함
  - 또한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한미 간 통상 협력 체제 강화를 강조를 통해 양국 간 이해도를 높여나가야 함

○ 세계 新금융시스템에 적응

- 글로벌 달러 불안에 따르는 세계 금융 질서의 안정을 위한 질서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
  - 정부는 G-20 회의를 포함,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신흥국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아시아 협력의 강화를 통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국내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對美 외교 강화

- 미국의 동맹 강화 정책을 감안하여 대미 외교 협력 강화
  - 대북정책, 외교정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는 더욱 중요
  -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라인과 미국의회 내의 지한파 네트워크 강화

○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미 삼각균형체제 성립

- **남북미 삼각의 역학 관계에 있어 정삼각형의 역학 균형을 형성 :**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신해빙기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간 동맹 강화와 남북관계에서의 유연한 자세 설정 필요
  - 미국은 부시 행정부 1기의 미일 관계 중시와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과 동등한 비중의 동맹 강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의 화답을 통한 동맹 강화 노력 필요
  - 북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된 북미관계에 대한 자신감으로 남한 정부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남한 정부의 유연한 자세 설정 필요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경협을 돌파구로 활용 :** 통일과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를 확보하여 남북 경협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활성화를 현 국면 타개의 돌파구로 활용
  - 민간 경협이 당국간 정치 논리에 의해 속도 조절돼서는 안된다는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의 기존 경협 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기업 자율적 판단 하에 계속 추진되어야 함

○ 원화 환율 안정 노력 증대

- 국내외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원화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켜 투기적 가수요의 발생을 막고, 수출입 업체들이 정상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원화 환율이 급등락 하는 경우에는 달러환율의 변동, 국내외 금융시장의 투기자금의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환율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통합 등의 방법으로 환율 안정화를 기도
  - 정부는 아시아 국가 간 협력체를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아시아 국가 간 이중적 금융안전 장치를 통해 원화 환율의 안정을 유도

○ IT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차세대 IT 산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야 함
  - 원천 기술의 확보를 위해 핵심 IT 분야의 R&D투자를 강화하는 가운데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유도하여야 함

-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브로드밴드 경쟁력의 핵심은 인프라 개발과 문화 콘텐츠 보유

○ GT붐 적극 확용

- 미국의 Green New Deal과 보조를 맞춰 녹색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해야 함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 민간과 함께 녹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 기업들이 사업, 인력, 기술, 관리 측면 모두에서 친환경 모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함

임희정 연구위원 외 (3669-4031, limhj9@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12월 수입 물가 하락세 지속

○ 12월 수입 물가는 환율 상승으로 자본재(1.6%)가 올랐으나 원자재(-11.7%)와 중간재(-3.7%)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11월에 비해 9.6%p 하락한 22.4%를 기록함

- 부문별로는 원자재는 농림수산품(-5.1%)과 광산품(-12.5%)이 모두 내려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전월대비 11.7% 하락함

- 또한 중간재는 석유제품(-9.4%)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제품(-1.9%)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자본재는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2.2%)와 정밀기계제품(0.6)이 모두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54.9%상승, 전월대비 1.6% 상승함

- 수출 물가는 석유화학제품과 금속제품 등이 내리면서 전월동월대비 25% 증가, 전월대비로는 4.4% 감소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1월	12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5.9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18.0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35.4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19.0	-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14.1	-
		취업자수(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2	-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1	-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4.9	-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54	60	44	32	-52	-1	-86	21	-
		무역수지(억$)	161	146	45	27	-65	3	-80	1	-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1.3	7.8	**5.6**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1	4.5	**4.1**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금융시장 불안 재연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 금리 대폭 하락

- **금리** : 2008년 4/4분기 실적 부진 전망 및 소매판매의 6개월 연속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2.39→2.21%)
- **환율** : 달러화는 ECB의 정책금리 인하(2.5→2.0%) 등에 따른 영향으로 유로화에 강세를 보인 반면, 글로벌 주가 하락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엔화에 대해 약세 시현 ($/€ : 1.3476→1.3116, ¥/$:90.40→89.84)

○ (국내 금융 시장) 금융시장 불안 재연

- **주가** : 2008년 4/4분기 영업실적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180.9→1,135.2)
- **금리** : 주초반 12월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주중반 이후 국내은행 신용 등급 관련 루머 등으로 급등세로 반전하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3.48→3.61%)
- **환율** : 외국인 주식매도 송금 수요, 국내은행 신용등급 관련 루머 등의 영향으로 1,392원까지 상승하였으나, 미국 주요 상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소식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전주말 대비 상승 (1,343.0→1,358.0)

○ (전망)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1.9	1.16[1)]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180.9	**1,135.2**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48	**3.61**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343.0	**1,358.0**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4	8,599	**8,212**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8,837	**8,023**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39	**2.21**
	일국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30	**1.22**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3476	**1.3191**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0.40	**89.84**
	두바이($/배럴)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45.93	**44.18**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15) 기준.